

2022

2022.12.05

Newsletter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HIS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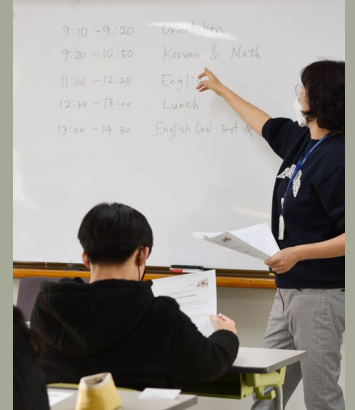
Devotion



HIS Spotlight



General News



ES News



MHS News



Counselor's Office News



Nurse's Office News



Library News



Creative Corner



Awards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Romans 1:16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HIS Message

지혜의 영이 충만한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Full of the Spirit of Wisdom

By 한병철 | 행정실장

Mr. Byungchul Han · Business Director

지난 토요일(12/3), 대한민국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9%의 확률을 뚫고 기적적으로 16강에 진출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마치자마자 경기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주장인 손흥민 선수(7번)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아마도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지켜본 중고등학생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세대인 저에게 있어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선수는 박지성 선수(7번)입니다. 그가 축구장에 나와 뛰어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보이면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웅장해지는 느낌까지 들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박지성 선수가 주장으로 뛴 모든 국가대표팀이 우리나라에 승리를 안겨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을 마지막으로 박지성 선수는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국가대표팀을 은퇴하였습니다.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바레인의 경기에서 우리는 주장인 박지성 선수(7번)와 첫 국가대표팀 경기를 뛰는 18세의 어린 손흥민 선수(11번)가 한 경기장에서 같이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박지성 선수의 은퇴를 아쉬워하던 사람들은 이 18세의 어린 선수가 12년 뒤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장(7번)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끄는 큰 성과를 낼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Last Saturday (12/3), we received the good news that the South Korean soccer team miraculously advanced to the round of 16 at the World Cup in Qatar, breaking through the 9% chance. Immediately after the match against Portugal, the captain, Heung-Min Son (No. 7), was caught on camera kneeling on the pitch and weeping. Perhap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watched the 2022 World Cup in Qatar will remember Heung-Min Son as the best soccer player in Korea. However, as a generation of semifinalists in the 2002 World Cup, the best soccer player in Korea is Ji-Sung Park (No. 7) to me.

When I saw him running around on the soccer field on camera, I felt like we could win, and my heart was filled with courage and hope. However, not all Korean national soccer teams captained by Ji-Sung Park were able to bring victory to our country. And, after the 2011 Qatar Asian Cup, Ji-sung Park retired from the national team at the young age of 30. During the 2011 Qatar Asian Cup group stage match between South Korea and Bahrain, we saw captain Ji-Sung Park (No. 7) and young 18-year-old Heung-Min Son (No. 11) playing together on the same pitch. At that time, people who regretted the retirement of Ji-sung Park did not seem to have expected that this 18-year-old player would lead the Korean national team to the round of 16 as captain (number 7) at the World Cup in Qatar 12 years later.

이처럼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올바른 세대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좋은 세대교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민 14:6-9).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정탐에 참여한 후, 가나안 정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던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갈렙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가나안으로 나아가자고 다른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들이 떠난 애굽으로 돌아가려던 다른 이들과 달리,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개척자로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the spirit of wisdom)”이 충만한 자였습니다(신 34:9). 지혜의 영은 그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앞세대인 모세가 안수하면서 그에게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였습니다(수 24:1-13).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 여리고 정복 등 여호수아는 보고 경험한 일들을 잊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고 할 만큼 믿음이 확실히 하고 당당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수 1:5-6)

이 말씀이 오늘 새로운 세대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As such, a proper generational shif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Through Moses and Joshua, we can learn about the good generational change as follows:

First, Joshua was the one who could interpret what he saw with his eyes from God's point of view (Numbers 14:6-9). After participating in the spying of Canaan as a representative of the tribe of Ephraim, unlike other spies who gave negative opinions about the conquest of Canaan, he encouraged others to go to Canaan and believe in the Lord God's walk, together with Caleb. Unlike other people who were afraid of what they saw and tried to abandon God's promise, resent God, and return to Egypt from which they left, he interpreted the reality he saw from God's point of view and stepped forward as a pioneer who aimed for the promised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Second, Joshua was full of “the spirit of wisdom” (Deuteronomy 34:9). The spirit of wisdom was not acquired by him himself, but was filled with him when Moses, the previous generation, laid his hands on him. We realize that the older generation must bless and pray for the next generation, their children and students, so that the next generation will be filled with the spirit of wisdom.

Third, Joshua was the one who remembered God's guidance and grace (Joshua 24:1-13). Joshua did not forget what he had seen and experienced, such as the Israelites' exodus, war with the Amorites, and conquest of Jericho.

Lastly, Joshua was a confident and dignified man of faith, saying, “Choose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But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Joshua 24:15).

In setting up Joshua, God said:

“No one will be able to stand up against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As I was with Moses, so I will be with you;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because you will lead these people to inherit the land I swore to their forefathers to give them.” (Joshua 1:5-6)

I pray that this word will come to a new generation today. I bless and pray that the Spirit of God's wisdom will come upon our children and students in abundance.

Devotion

믿음의 계절

Seasons of Faith

By 오영준 | 중고등 성경 교사

Mr. Youngjoon O · MHS Bible Teacher

저는 자라면서 매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친척들과 모두 모여 친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보통 15-25명의 가족 구성원들과 갖는 모임이었습니다.

친할머니 집의 뒷마당에는 사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늦가을에서 이른 봄까지, 나무에는 사과가 많이 맺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자, 사과 열매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되니, 사과들은 먹음직스럽게 제법 잘 익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아직 사과 열매를 따는 시기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9월 초가 되면, 사과들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열매들이 무르익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촌들과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에서 사과를 따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사과들을 가족과 함께 식사 중에 먹었습니다. 비록 사과 열매가 작은 편이었지만, 새콤하고도 단 맛이 났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할머니의 집 뒷마당에서 나온 사과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면, 과일 나무는 계절을 따라 과실이 풍성한 시기와 함께 열매가 없는 시기를 모두 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식물의 생장을

Growing up, all my uncles, aunts and cousins went to my grandmother's house to have dinner together every Sunday after church. A typical gathering consisted of around 15 to 25 family members.

My grandmother had an apple tree in her backyard. From late autumn to early spring, there were very few apples to be seen on the tree. But come spring, apples would start to appear. And by summer, the apples looked ready to eat. But my grandmother would tell us they were not ready for picking.

By early September, the apples would start to the ground. That meant the apples were plump and ripe. My cousins and I would spend hours climbing up the tree and picking all the apples from the branches. Afterwards, we would eat them as family. Though the apples were quite small, they tasted tart and sweet. It was incredible to think that these delicious apples came from my grandmother's backyard.

According to the laws of Mother Nature, a fruit tree must take its course through the seasons of fruitfulness and barrenness. We accept this cycle as being a natural process of botanical growth. In its

위한 순리임을 받아들입니다. 유기체 상태의 나무에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방법을 시도한다 해도,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인내하며 계절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와중에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이 시간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열매에 비유하는데, 이는 과실의 생장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과실이 사계절 동안 풍성히 맺히며 모두 떨어지는 시간을 지나듯, 우리의 신앙 생활 역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사과 나무에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도, 그 나무가 영원히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추운 겨울을 지나 열매가 맺히는 계절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겨울은 한 계절에 불과하지만, 사과 나무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과 나무에 열매 하나 맺혀 있지 않아도, 사과 나무는 여전히 사과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당장 믿음의 결실이 보이지 않는 계절에 있을 때, 자신을 과하게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심지어 나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저 ‘때’가 아닐 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조한 계절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는 나의 믿음이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사랑이 기반이 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겨울의 계절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진리를 붙잡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열매가 없을 때에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계절과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organic state, we cannot do anything to manipulate the growth or alter the state of the fruit tree when it is in a season of barrenness. We just have to wait patiently for the season to conclude, however, we can also anticipate that the ending of a season of barrenness will bring about a season of fruitfulness.

It is also true with our spiritual growth in Christ. The Bible compares our faith to fruit because of its similarities to a fruit's botanical growth. Just as a fruit goes through seasons of fruitfulness and barrenness, our spiritual growth also experiences seasons where we see the fruits of our faith and seasons where living the Christian life feels meaningless.

When an apple tree is in its barren state, we do not worry that the tree will remain fruitless forever. We understand very well that it must endure the winter season to enjoy the benefits of the harvest season. The winter season is only temporary, but it is a necessary part of an apple tree's botanical growth. Most importantly, in the winter season, when an apple tree is barren and no apple is to be found, it still remains an apple tree.

As Christians, we need to apply the same botanical concept in our own spiritual walk with Christ. Oftentimes, we judge ourselves too harshly when we do not see growth or fruit in our faith. It is easy to think that we are doing something wrong, or worse yet, see the season of barrenness as an indication of a weak faith or weak relationship with Christ. However, it could just mean that we are going through a winter season of faith. In a season of barrenness and dryness, I believe it is important to show ourselves grace and trust that our relationship with Christ is not based on our good works but in His unconditional love for us.

In winter seasons of faith, we have to learn not to trust in our feelings, but cling onto God's truth that we are saved by grace and nothing can ever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We have to avoid the temptations of comparing our seasons of fruitfulness when we are experiencing a season of barrenness. We have to

과거에 내가 그분께 얼마나 헌신하였든지, 미래에 얼마나 드리고자 하는지에 좌우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목숨을 내주셨다는 사실로부터 나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의 겨울에, 우리의 믿음이 가라앉고 하는 일에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사랑 받는 자녀입니다. 이러한 계절을 지날 때에도, 여러분이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사실과, 풍성한 계절이 반드시 오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잘 인내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의 행위에서 찾지 말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더욱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겨울을 무사히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넘치는 수확이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remember that our identity in Christ is not on how much we have done for Him in the past or what we will do for Him in the future. Rather, our identity is in the amazing grace that He has shown us on the Cross,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He gave up His life so that we may have eternal life with Him.

In winter seasons of faith, even when our faith seems dry and we are seeing no fruit, we are still beloved children of God. It is my prayer that you do not get discouraged when you experience winter seasons of faith, but trust that God is still growing you and preparing you for the fruitful seasons to come.

Endure well. Do not let your good works define who you are as a Christian, but may you find your identity in the grac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Continue to cling to your faith even when you see no fruit, knowing that Christ will never leave or forsake you in your times of barrenness. And if you remain firm with an unwavering faith in the passing of winter season, come the new season, Christ will reap an abundant harvest of blessings.

HIS Spotlight

오요한 | Mr. Yohan Oh

동문 • Alumnus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Please introduce yourself.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겨울까지 한동글로벌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했던 졸업생 오요한이라 합니다.
이렇게 졸업생 자격으로 HIS Spotlight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Hello, I am Yohan Oh, a graduate of HIS who went to HIS until the winter of 2008.
It is an honor for me to be interviewed as an alumnus in HIS Spotlight. Greetings.

Q. 지금 어떤 일을 하며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What work do you do and what goal do you have?

현재 SBS에서 드라마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 소속이므로 연출에 저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지만 저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면 언젠가 하나님을 드러낼 드라마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제 삶을 어떤 드라마로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I am working at SBS as a director in the drama department. Currently I cannot fully express my ideas in directing due to company policies, but when the time is right I would like to produce a drama that reveals God. I look forward to seeing how God will show my life as a drama.

Q. 한동글로벌학교를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What did you like about attending HIS?

믿음의 동역자를 어릴 때부터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한집의 가장이 되어 있을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7학년 때부터 만난 친구들은 여전히 제게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덕분에 다들 멋진 청년으로 자란 것 같습니다.

For me the best thing about attending HIS was meeting friends of faith in my youth. We met in 7th grade and now have already reached the age to own a household, but are still close fellow workers in faith. I believe we have all been strengthened by praying and rooting for each other and have matured as healthy men together.

Q. 감사를 전해 드리고 싶은 분이 있나요?

Do you have someone you want to thank?

저를 신앙으로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한동글로벌학교는 그저 지식을 쌓는 학교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지혜 또한 배울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여전히 신앙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건 어린 사춘기 시절에도 저를 붙잡아 주셨던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I would like to give thanks to my teachers at HIS who taught me with faith. For me, HIS was not only a school to learn knowledge but also wisdom through excellent teachers. Thanks to their continuous support during my puberty, I have been able to seek God throughout my life and keep my faith until now. Once again, thank you, teachers, for your persistent guidance.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current HIS students?

늦은 건 없으니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시작하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8학년 나이로 7학년에 입학했고, 대학 입시도 재수를 했습니다. 군대도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들어가 제 입대 날 사진 속 친구들은 전역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위해 주변에서 말리던 영어교육과를 자퇴했고, 그 결과 26살에 1학년으로 재입학 해 20살 학우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정한 나이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이 정한 규칙에 얽매어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이미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파워 J(MBTI)이실 수도!) 혹시 지금 조급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 조급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군대 다시 갈 거 빼면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며, 친구들과도 재미있는 시간 후회 없이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Nothing is too late, so start whenever you can. I entered school at 7th grade being one year older and retook the entrance exam for university admissions. I have a picture taken at the military when my friends were discharged, but that day I was enlisted. I dropped out of my major, English Education, when nobody could understand. But I chose to do what I wanted to do and so re-entered as a freshman and took classes with students 6 years younger than myself. There is no age that the world defines and we are not to be discouraged by the rules of society. We were already in His plan when we came to this world. (God might be a "power J"(in MBTI)!) If there are students who feel anxious now, you will see it vanish when you realize that you are living in God's plan. I envy you, except that I would have to serve in the military again. I hope you pray for what you want to do and what you need to do, and also enjoy your time at school with your friends.



Q.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눠주세요.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s?

1. 세상 속에서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2. 하나님의 시선으로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1. To have good influence in the world
2. To produce good works through God's perspective

General News

재난대응 지진 대피 훈련

Disaster Response Earthquake Drill

2023 신입학 시험 및 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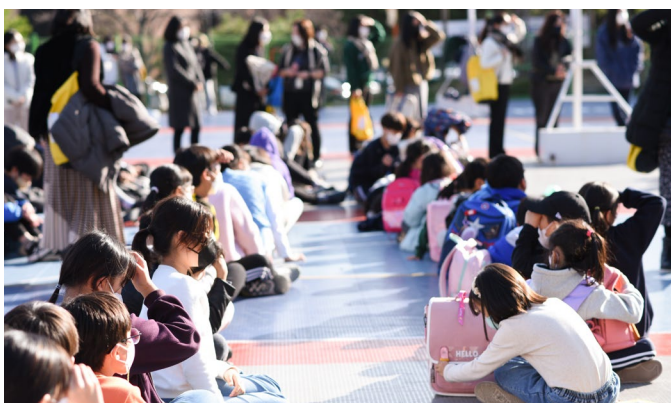
2023 New Students Admissions Tests and Interviews

재난대응 지진 대피 훈련

Disaster Response Earthquake Drill

By 김세윤 | 안전교육 담당교사

Mr. Seyoon Kim · Teacher in Charge of Safety Education



11월 24일 2시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1일 홈룸시간에 미리 학생들에게 지진경보가 울릴 때 대처해야 할 행동을 실습한 후, 며칠 후 불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 받은대로 경보음이 울렸을 때 모두 책상 밑으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잡고 기다렸고, 방송 안내에 따라 운동장에 대피했습니다. 특히 조용하게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대피하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잘 따라주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머리를 책가방으로 보호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 포항에서 큰 지진이 있었던 터라, 학생들과 교직원들 모두 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임하였습니다.

On Nov 24th, we implemented Disaster Response Safety Korea Training at 2:00 pm. After students received education on how to respond when the earthquake siren rings on Nov 21st during HR time, the earthquake drill alarmed without notice after a few days. As they learned, students went underneath their desks, each holding the leg of the desk, and evacuated to the court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broadcasted. As I had emphasized not to speak with each other while moving, they behaved well and followed guidance. Elementary students showed exemplary behavior by covering their heads with their backpacks. Due to the big earthquake that occurred in 2017 in Pohang, all students and faculty/staff members acted together and did not take it lightly.

2023 신입학 시험 및 면접

2023 New Students Admissions Tests and Interviews

By 김미경 | 중고등 입학

Ms. Mikoung Kim · MHS Admissions

2023학년도 1학기 초, 중, 고 편입학 전형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11월 26일(토)에는 면접 및 교과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편입학 지원자는 총 20명으로 당일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하여 60명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편입학 전형을 무탈하게 마무리하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형에 참여한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The 2023 spring semester transfer admission examinations were finished well. Tests and interviews were implemented on Nov 26th(Sat). 20 transfer students applied, along with parents and faculty and staff, adding up to 60 participants. We are grateful to God for being able to have the event in spite of COVID-19. Thank you to all applicants, parents, and school faculty and staff.



ES News

3학년 진로체험

3rd Grade Career Experience

과학 전람회

Science Fair

4-5학년 SKAC STEM 대회 참가

4 and 5th Graders' Participation in SKAC STEM Fair

SKAC 영어단어 암송 대회

SKAC Spelling Bee

3학년 진로체험

3rd Grade Career Experience

By 안에스더 | 초등 3학년 담임교사

Ms. Esther Ahn · ES Grade 3 Teacher



11월 16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포항에 위치한 환경친화적인 '착한오빠농장'에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환경친화적인 농장에 대해 배우며 채소를 재배하고 닭에게 먹이를 주며 달걀을 모으는 등의



On November 16th, the third grade students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an eco-friendly farm called The Good Father's Farm (착한아빠농장) here in Pohang. The students learned about eco-friendly farming, planted vegetables,

체험을 하였습니다. 교실 밖에서 기분전환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일상 생활 속 디지털 세상이 익숙해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분의 창조 속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잊기 더욱 쉽습니다. 농장에서 보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구를 잘 관리하는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이 이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감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fed chickens, collected eggs, and more. It was a refreshing experience for the students to learn and enjoy God's creation outside the classroom. It is easy to forget that we are living within God's creation, especially in this era where the digital world seems more relatable to us. Our time at the farm helped us remember our duty to take good care of the Earth that God has given us. I am thankful that this trip was influential in growing the students' hearts for God's world and being faithful stewards of it.



과학 전람회

Science Fair

초등학교 학생들은 11월 21일 과학전람회에 참여했습니다. 학년별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심판들에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접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배운 지식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학 기술과 디자인 과정에 적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열린 올해의 과학전람회는 학생들이 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보며 배울 수 있는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By Ms. Yana Ibragimova

초등 교사 · ES Teacher

Elementary students had a Science Fair on November 21st. Every grade had prepared different projects, and they presented and explained them to the judges. The students have had an opportunity to explore different topics, and to apply their knowledge of scientific method as well as engineering and design process. This year's Science Fair was very special to students, who had it for the first time in a couple of years, and it was a good opportunity for the students to learn about different areas of science.





4-5학년 SKAC STEM 대회 참가

4 and 5th Graders' Participation in SKAC STEM Fair

By 오시경 | 초등 3학년 교사

Ms. Sikyung Oh · 3rd Grade Homeroom Teacher

4, 5학년 학생들은 11월 22일 경남국제학교에서 진행된 SKAC STEM 대회에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젓가락으로 가장 긴 다리를 만드는 팀이 우승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탐험하며 심판들에게 자신의 것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금상을 수상하여 자랑스롭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본 대회를 통해 새롭게 배우며 경험할 수 있었던 것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가질 수 있게 된 뜻깊은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4th and 5th grade students had a great time at the SKAC STEM Fair at Gyeongnam International Foreign School (GIFS) on November 22nd. The students were given a group challenge in which they had to build the longest bridge using chopsticks, and through the challenge, they could learn teamwork and make new friends. They also explored other students' projects and presented their own science projects to the judges. At the end of the event, the 4th and 5th graders from HIS won 1st place! We are very proud of them! :) Every student learned and experienced something new during the fair, and we are thankful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after the pandemic.



SKAC 영어단어 암송 대회

SKAC Spelling Bee

By 박에스터 | 초등 디렉터

Ms. Esther Park · ES Director

초등학교 학생들은 11월 동안 여러 영단어의 철자를 공부하며 영어단어 암송 대회를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교내 학년별로 암송 대회를 거친 후 선발된 두 명의 학생이 대표로 SKAC 영어단어 암송 대회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2월 1일, 선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SKAC 영어단어 암송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각 학년 대표로 김하은(1학년)과 김은결(5학년) 학생들이 대회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대회 참가 학생들은 최선을 다하였으며 단어를 주의 깊게 듣고 철자를 발표하는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Elementary students worked hard in November studying the spelling of various words in preparation for the Spelling Bee. Each grade held a class Spelling Bee to pick two winners for the SKAC Spelling Bee competition. On December 1st, the two winners from each class participated in the online SKAC Spelling Bee. Haeun Kim(1st grade) and Eunyul Kim(5th grade) won the SKAC Spelling Bee competition for their grade level. All the contestants worked very hard and did an excellent job of listening to each word and spelling out the words.

교내 영어단어 암송대회 선발 학생 | Class Spelling Bee Winners

학년 Grade	선발 학생 Chosen Student
1	김하은 Haeun Kim · 김선율 Seonyul Kim
2	Sophia Khegay · 남기온 Gion Nam
3	김민준 Jason Kim · 백진은 Joseph Paik
4	박온유 Onyu Park · 이재은 Sarah Lee
5	백도은 Samuel Paik · 김은율 Eunyul Kim
6	신은애 Eunae Shin · 안승빈 Timothy An



MHS News

가정생활교육

Family Life Education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SKAC 결승전 | 배구, 풋살

SKAC Finals | Volleyball, Futsal

SKAC STEM 대회

STEM Fair

가정생활교육

Family Life Education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어린시절부터 평생에 걸쳐서 정결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망센터의 고은애 강사님과 김정주 센터장님을 통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에게는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과 미디어 매체 속에서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방법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아가 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관점으로 살아낼 것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이성교제와 가정을 만들어나가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아울러,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 속 문화의 흐름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By 이지원 | 보건 교사

Ms. Jiwon Lee · School Nurse

God Saw that it was Good

The purpose of the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is to guide students to make righteous decisions from their childhood and remember God throughout their lives. Speakers of the Hope Center, Ms. Ko Eun Aeh and director Mr. Kim Jung Joo gave lectures.

Middle school students learned about the influence of pornography and how to discern media biblically through the lecture. Further, they thought about how to live with the perspective of God's Kingdom with discernment.

High school students learned about romantic relationships and the important values of forming a family, so that they could gain discernment in the culture of society and find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들을 더 배웠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제적인 주제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분별할 줄 아는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며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어린시절부터 평생에 걸쳐서 정결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망센터의 고은애 강사님과 김정주 센터장님을 통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에게는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과 미디어 매체 속에서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방법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아가 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관점으로 살아낼 것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이성교제와 가정을 만들어나가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아울러,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 속 문화의 흐름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들을 더 배웠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제적인 주제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분별할 줄 아는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며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ways to ask God through the process in the future.

Through the lectures, students were encouraged to hold on to the Word that God has given us by His love. I hope students will remember God and thus discern things in their actual lives. I pray that students become ones who God will say are good and enjoy God's love throughout their lives.

The purpose of the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is to guide students to make righteous decisions from their childhood and remember God throughout their lives. Speakers of the Hope Center, Ms. Ko Eun Aeh and director Mr. Kim Jung Joo gave lectures.

Middle school students learned about the influence of pornography and how to discern media biblically through the lecture. Further, they thought about how to live with the perspective of God's Kingdom with discernment.

High school students learned about romantic relationships and the important values of forming a family, so that they could gain discernment in the culture of society and find ways to ask God through the process in the future.

Through the lectures, students were encouraged to hold on to the Word that God has given us by His love. I hope students will remember God and thus discern things in their actual lives. I pray that students become ones who God will say are good and enjoy God's love throughout their lives.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By 박인옥 | 중고등 교무부장

Ms. In Ok Kwak · MHS Academic Team Leader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김준협 교수님과 대학생들이
진행하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중고등학생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15일과 18일 양일간 채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인권, 환경, 저개발국 문제 등의 국제사회
이슈들을 카훿, 부스 방문, 자신의 자원 설명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was held by
Professor Joon-hyeop Kim and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Handong
Global University. 2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during November 15th and 18th at the chapel.
Students were able to think about global issues such as
human rights, environment, problem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based on the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activities such as Kahoot, visiting booths,
explaining about their selected resources, etc.



7, 10학년 사회 수업

7th and 10th Grade Social Studies Classes

By 김소중 | 중고등 사회 교사

Ms. Sojoong Kim · MHS Science Teacher

7학년 사회 수업 | 7th Grade Social Studies



11월 18일, 7학년 사회 수업시간에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모의재판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모의재판실에서 각자 역할을 맡아 민사재판 역할극을 진행하였습니다.



On November 18th, 7th grade students visited the mock court of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HILS) during a social studies class. Students did a role play in a civic trial at the court.

10학년 통합사회 수업 | 10th Grade Integrated Social Studies



10월 24일에서 28일 동안, 10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의 전시회 [y,Our Bright Future]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미래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 단원과 연관된 내용으로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작품을 현장에서 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유송희 교수님과 전시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나와 설명을 해주셔서 더욱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During October 24th-28th, 10th grade students went to the exhibition [y,Our Bright Future] of Spatial Environment System Engineering, Handong Global University. It was a meaningful time for the students because they could see actual models made by university students in relation to the lesson 'Future Socie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they were currently learning. Professor Songhee You and university students of the corresponding major presented the projects, which made it more meaningful for our students.



SKAC 결승전 | 배구, 풋살

SKAC Finals | Volleyball, Futsal

By Mr. Tim Northe
중고등 체육 교사 · MHS P.E. Teacher

11월은 SKAC 결승전이 계속되는 달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중학교 풋살을 주관했고 고등학교 배구는 부산국제학교와 부산국제외국인학교에서 함께 주최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남학생들은 부산국제학교에서, 여학생들은 부산국제외국인학교에서 경기에 참가하였습니다.

November was the month of finals for SKAC. We held both the MS Futsal finals which were hosted by HIS and the HS Volleyball finals which were hosted jointly by BFS and ISB, with the boys playing at BFS and the girls at ISB.



11월 19일, 흥해 칠포 축구 경기장에서 우리학교 주관으로 중학교 풋살 경기를 치렀습니다. 5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경기에 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남학생들은 A, B, C의 3개 팀으로, 여학생들은 A와 B팀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팀이 서로 경기를 치른 뒤, 상위 두 팀이 겨루고, 결승전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우리 학교 남학생들은 B, C팀, 대구의 A팀이 각각 우승하였습니다. 여학생들은 우승하지는 못했으나 좋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학생 두 팀에서 모두 승리한 부산국제학교와 겨룰 때, 우리 학교 A팀은 매우 우수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참가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The MS Futsal was hosted by HIS at the Heunghae Chilpo fields November 19th. There were 5 divisions of teams so that students got the best opportunity to play against other players at their own level. The boys had 3 divisions, A, B and C. While the girls had both A and B divisions. Each division played each other and then the top two teams played one more time in the final. HIS boys won the boys B and C divisions with Daegu winning the boys A. HIS girls didn't win either division but they played hard and showed a lot of improvement throughout the season. The A team played a really good game against BFS who ended up being the girls champions in both girls divisions. Congratulations to all the players.



11월 17일, 부산국제학교와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주관으로 우리 학교는 지난 배구 예선전에서 우수한 경기를 보여주어 기대를 갖고 결승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여학생들과 남학생들 모두 두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학생 B팀은 2등의 성적을 거두고 꾸준한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학생 A팀 역시 진전하였으나 아직 다른 학교와의 경기에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남학생 B팀은 우수한 경기로 우승하였고, A팀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으나 간발의 차이로 부산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에서 승리를 거두며 3등을 차지하였습니다. 남학생 A팀의 경기는 막상막하로 긴장되면서도 흥미로운 경기였습니다. 대구국제학교가 1등, 부산국제학교가 이어 2등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HS volleyball was hosted by BFS and ISB on Nov 17th and HIS went to the tournament with high hopes after playing well in the first tournament. Both the girls and boys had two divisions. The girls B team came second and showed a lot of improvement to make the final. The girls A team also improved a lot but still could not overcome the other schools. The boys B team continued their unbeaten run and won the boys B division. The boys A team played really well and lost close games to BFS and DIS. They had to settle for 3rd place. The boys A teams were all evenly matched and all the games were exciting to watch. DIS ended up being the boys champions after a really close final with BFS.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 스포츠 팀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고, 이전과 같이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경기를 즐겼고 서로 교류하며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중학교 농구와 고등학교 풋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더욱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Overall it was a good season for our sports teams and it has been great being able to get our students out playing again. Many of our students have made friendships with students from the other schools and enjoyed playing with them. We look forward to next year when we will start with MS basketball and HS Futsal.



SKAC STEM 대회

SKAC STEM Fair

이번 학기에 한동글로벌학교에서 SKAC STEM 대회를 주관하여 부산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국제영재아카데미, 부산국제외국인학교와 진행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참가하여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팀으로 구성된 학생들은 문제를 발견한 후, 과학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생물학/자연과학, 화학, 심리학과 사회학, 컴퓨터공학, 물리학과 천문학, 수학과 통계, 그리고 로봇 공학 분야를 기반으로 자신의 과학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김희준(11B), 권순재(12A) 팀이 발표한 환경과학 프로젝트가 주목할 만합니다. 발산의 원리에 따라 물이 이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물이 필요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조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 한 쪽은 미온수와 다른 쪽은 양초 위에 얼음이 들어있는 지퍼백이 걸려 있습니다. 대류현상에 의하여 온도가 변하자, 증발이 발생하고 지퍼백이 곧 응결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시도를 반복하여 매 회 나타난 물의 데이터를 기록하였습니다. 양초의 길이와 양에 따라 매 회 다른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40회 만에 양초의 사용량에 따라 응결된 물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By 김지연 | 중고등 과학 교사
Ms. Sara Kim · MHS Science Teacher

This semester, HIS held the SKAC STEM Fair and competed with other schools from BFS, DIS, GPA, and ISB. By participating, students from middle and high school had a chance to scientifically approach the areas that pique their interest. Teams were required to find a problem and resolve it by scientific method. They created their science projects based on the categories of Biology/Environmental Science, Chemistry, Psychology and Sociology, Computer and Engineering, Physics & Astronomy, Mathematics & Statistics, and Robotics.



Heejun Kim(11B) and Soonjae Kwon(12A) experimented an efficient way to transport water by the principle of evaporation with the purpose to transport water to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tank is divided into 2 parts: one filled with warm water and the other with a zipper bag filled with ice hung above burning incense at the bottom. As convection currents help fluctuate the temperature, evaporation occurs and causes condensation to occur directly on the zipper bag. Later, they collected the water formed by the interaction and recorded their data based on the amount of water for each trial. Each trial varied due to the length and amount of incense. They were able to prove that the amount of incense used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the condensed water after 40 t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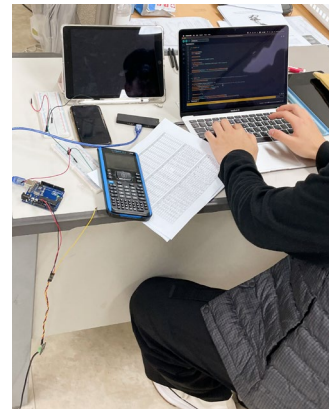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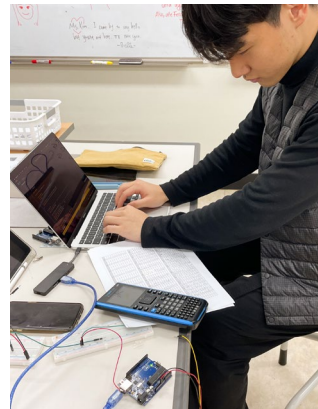
학생들은 방과후에 남아 자신의 프로젝트에 시간을 들여 발전시키며 오류가 없는 지 재차 점검하였습니다. SKAC STEM 대회는 11월 22일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와 관련이 없는 교원과 한동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이 심판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24일, 심사숙고 끝에 대회 수상자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부문에 따라 금상과 은상을 수여하였고 개별적으로는 독창성과 인기상이 또한 해당 학생에게 수여되었습니다.



Students worked hard by staying after school and improving their projects in any flaws they encountered. SKAC STEM Fair was officially held on November 22nd. Teachers unrelated with the SKAC STEM Fair,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of HGU were selected to be judges for the fair. After a thorough evaluation, the results for the SKAC STEM Fair were announced on November 24th. Projects were selected as 1st place and 2nd place for each category, and separately, Ingenuity and Popular Awards were also rewarded.



우리 학교에서 SKAC STEM 대회를 진행할 수 있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본 대회를 통해 과학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기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는 도전의 장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It was an honor to hold the official SKAC STEM Fair at our school this year and we hope to encourage more students to join this wonderful fair to not only cultivate their knowledge in science but challenge themselves to go beyond their limits.



학생 발표자료 | Students' Projects
<http://bit.ly/3iwrn6Q>

Counselor's Office News

By 장정은 | 상담 교사

Ms. JungEun Jang · School Counselor

캠핑트립 응원 메시지 전달 Camping Trip Gifts Delivery



일시 2022년 11월 1일

대상 중고등 학생

활동내용

작은 선물과 함께 캠핑트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 메시지 전달함.

Date November 1st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ctivity

Handed out small gifts hoping that God be with them every moment of the Camping Trip

Library News

더불어 열매 'Along With' Fruits

기증 도서 소개 Introducing Donated Books

도서부 코코보코 CO-CO-BO-CO Book Reading Club

By 이희정 | 사서
Ms. Hee Jung Lee · Librarian

어느새 계절의 끄트머리인 겨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지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천나무(heavenly bamboo)는 남들이 지고 없는 겨울에 빨갭게 열매 맺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마치 예수님이 추운 겨울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따사롭게 번지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겨우내 빨간 열매로 빛나는 천국의 꽃처럼 한 해 동안 부지런히 달려온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며, 아름다운 주님 나라의 열매들로 올려봅니다.

It has already become winter, the end of the seasons, and we are almost near the climax. A heavenly bamboo, which we can easily see around us, is known for bearing its red fruit when all leaves have fallen. It reminds us how Jesus came to the world during the cold winter with the warm fruit of love. I would like to bless our students, who have come a long way during this year like a flower in heaven shining during the winter and lift them up as the fruits of the Lord's kingdom.



더불어 열매

'Along With' Fruits

시 | Poems

나에 대해서 | About Me

김수하 • Suha Kim (7B)

나의 의견을 적는 것보다
나의 느낀점을 적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세이를 읽는 것보다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 더 집중이 잘 됩니다
흘러내리는 폰 머리를 하는 것보다
단정하고 예쁘게 묶는 것을 좋아합니다
넓고 푸르른 하늘,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빛나는 별, 밤의 우아한 여왕 달을 보는 것을 사랑합니다.
코 끝이 시린 겨울날 책을 읽으며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울상을 하고 있는 것보다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웃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밤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느껴지는 밤의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합니다.
남들에게 친절을 더 베풀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고집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I like writing my reflections
more than writing my opinions
I like reading novels more than reading essays
I can concentrate more in the library
I like doing a neat pretty ponytail
more than putting down my hair
I love to gaze upon the wide sky, rainbow of God's promise,
shining stars, and the queen moon in the night.
I like sipping hot cocoa,
reading a book on a cold winter day
I like smiling warmly and softly
as the spring sunshine
more than being about to cry
When I leave the library after studying at night
I like breathing the night air
I value the process over the outcome
I want to be more nice to others
I have this consistent heart
hoping there may be change but with sincerity unaltered
with the people I like

연습 | Practice

김은수 • Eunsu Kim (7A)

청량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띠는 도자기는
몽개지고, 버려졌던 조각들의 어울림이었다

The pottery with beautiful refreshing colors
Was a combination of crushed, abandoned pieces

아무것도 아닌 흙은 도자기라는 운명에 의해 선택을 받아
어느새 형태를 갖춘 어설픈 모양으로 빚어졌다

Mud that was nothing was chosen by fate
And was shaped to have a form, imperfect yet

그리고 흙 덩어리는 선선하지만 칼같은 바람에,
따뜻하지만 메마르는 뜨거움 속에서 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

And the mud lump finds its complete self
At the fresh yet piercing wind,
In the warm yet parching heat

두 번을 불가마 속에서 견디고 두 번을 색 입히는 과정에서
몇 몇 흙은 도자기 되기를 포기한다

Twice it endures in a furnace and twice it wears colors
Some mud give up on becoming pottery

하지만 우리가 마침내 보는 도자기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친
강한 도자기라는 것

완성된 도자기만이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

우리는 많이 버려지지만 후에 완성될 아름다운
도자기를 꿈꾸며 내 자신을 빚어가고 닦아가는 것

이런 게 연습 아닐까

Yet the pottery we see eventually is the one
That has gone through all this process

Only the complete is chosen and used

We are abandoned many times but will be complete, beautiful
pottery
With the dream, shaping and polishing ourselves

Isn't this practice

이모티콘 | Emoticon

백유진 • Eujin Baek (9B)

핸드폰 뒤에 숨은 우리는
슬퍼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해도 울 수 있다

Hiding behind the phone
We can smile when sad
And cry when happy

지금 나는 웃을 수 없어도
화면 속의 아이는 웃을 수 있으니

I cannot smile now
But the child on the screen can

전혀 다른 표정으로 모두를 속이고
전혀 다른 얼굴을 뒤집어줄 수 있으니

Tricking everyone with a completely different expression
Being able to wear a completely different face

하지만 핸드폰 밖의 우리는 숨을 수 없다
슬프면 웃을 수 없고
행복하면 울 수 없다

Yet we cannot hide outside of the phone
We cannot smile when sad
And cry when happy

그 대신 우리의 감정을 속이겠지
내가 이모티콘이 된 것처럼
끊임없이 웃고 끊임없이 우는
감정의 기호문자처럼

Instead we will trick our emotions
As if we were emoticons
As if we were emotional code text
Endlessly smiling endlessly crying

이모티콘 | Emoticon

최한결 • Hankyul Choi (9B)

이모티콘, 감정과 조각의 합성어
다른 말로는 그림말
때로는 외계어, 외계인

Emoticon, a compound of emotion and icon
In other words picture language
Sometimes called alien language, alien

사람들은 왜 감정에 조각이라는 단어를 합쳤을까
작은 조각으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함일까

Why did people combine icon with emotion
Is it to show emotions with a small icons

느끼고 바라보는 것들을 조각하기 위함은 아닐까
그렇다면 내 감정도 조각할 수 있지는 않을까

Maybe to carve what we feel and see
Then may I be able to carve my feelings

감정과 작은 그림 그 사이,
 감정과 공감 그 사이의 나
 작은 그림 속에 조각조각 묻힌 감정

눈을 바라보면 금방 알아차리지만,
 화면 속에 빛나는 작은 조각의 눈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이모티콘, 감정과 조각의 합성어
 때로는 진짜 나,
 때로는 조각한 나.

Between emotion and a small drawing
 Me between emotion and compassion
 Emotion buried inside a small drawing piece by piece

The eyes cannot cover
 But in the eyes of the small piece inside the screen
 We can never tell

Emoticon, a compound of emotion and icon
 Sometimes the real me
 Sometimes the sculptured me

서평 | Book Reviews



© yes24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나태주)

I Want to Give the Most Pretty Thought to You (Tae-joo Ra)

임소망 · Somang Lim (9A)

이 책은 나태주 시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딸을 생각 하면서 쓴 시집입니다. 그래서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꽃을 상징으로 사용하며 대부분의 칼럼에서 꽃들과 여자(딸)의 그림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이 책이 딸을 위한 책이었음을 몰랐을 때에는 그저 사랑을 노래하는 시집인줄 알았는데 점점 읽어갈수록 단순하고 평면적인 사랑이 아닌 딸에 대한 무한 애정을 표현하는 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딸에 대한 사랑은 때로는 첫사랑처럼, 나아가 새로운 생명에 대한 탄성과 감탄, 그리고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떠나가는 과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느끼는 아버지의 애정을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부분 중에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전개되는 것처럼 총 4가지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마다 시간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의 제목은 “세상에 와 그대를 만난 건”입니다. 이 제목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온 딸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을 마음껏 드러내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시들을 표현하자면 첫사랑처럼 다가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째 장의 제목은 “오늘도 네가 있어 마음속 꽃밭이다”입니다. 딸이 어느 정도 자란 시점에서 점점 자라면서 원하는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응원하면서 언제나 힘들면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자라는 딸을 멀리서 바라보며 흐뭇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This book is a collection of poems by a poet Tae-joo Ra, written to his beloved daughter. So the book has illustrations of flowers symbolizing his love for his daughter and most columns have drawings of flowers and a woman(his daughter). At first, when I didn't know it was a book for his daughter I thought it was simply a collection of poems about love. But the more I read the poems, they were not cliché and I could feel the poet's full love towards his daughter. The love he expresses is sometimes like first love and covers admiration of life to the process of his daughter leaving him. I think it was a good time for a father because it deals with the father's affection felt in the midst of so many times in a three-dimensional way.

As I explained before, the book consists of four chapters and shows the flow of time. The first chapter is “Meeting you, coming to the world.” By the title you can feel the joy of the father to greet his daughter to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 poems in this chapter feel like first love. The second chapter is “My heart is still a flower garden because I have you.” When the daughter has grown and pursues her dream, he roots for her and tells her that she can come to him whenever she wants. You can tell

딸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과 사랑은 무한하지만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새가 언제까지나 그 어미새 밑에 있을 수 없듯 시인의 딸도 그의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딸아이가 보고 싶다고 떠나기를 포기한다면 딸의 행복을 막는 것이기에 딸의 행복을 위해서 이별을 고합니다.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리움을 시인은 3장,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그만”에 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딸이 없는 빈 자리 속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장은 오직 한 번 뿐인 여행입니다. 이제는 그 간 딸들과의 추억들을 그리워하고 돌아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직 한 번 뿐인 여행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한 번 뿐이고 더 이상 돌아오질 않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100편 중에서 하나를 추리기 어려웠지만 제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대 떠난 자리에

그대 떠난 자리에 혼자 남아 그대를 지킨다
 그대의 자취, 그대의 숨결, 그대의 추억,
 그대가 남긴 산을 지키고
 그대가 없는 들을 지키고
 그대가 바라보던 강물에 하늘에 흰 구름을 지킨다
 그러면서 혼자서 변해 간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대도 모르게 조금씩.

시인은 떠나간 딸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이지만 저에게는 떠나간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을 글로 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의지하던 친구가 떠난 지 1년이 지나고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그 때 느꼈던 감정들은 이미 차게 식어버렸고 저는 그 친구를 제가 그 당시 느꼈던 그대로 마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의 모든 것을 기억하겠노라고 했지만 나도, 그 친구도 모르게 변한 나를 이 시에서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더욱 애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딸에게 하는 메시지를 읽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감정을 보고 마지막으로 나의 추억과 기억마저 회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밌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나태주 시인의 책을 감상하시길 추천합니다.

the father's heart is delighted, seeing his daughter.

The father's love of his daughter has no limit, but time does. As a baby bird cannot stay in the mother's nest forever, his daughter also leaves her father. But the poet knows that if he does not send her she cannot be happy. So he bids her farewell. The third chapter "Waiting and waiting again" shows his feelings on how he misses her. In short, I would say it is the father in void without his daughter. The last chapter is "A trip only once." Now he looks back on the memories of her and reflects on his life. I think this part is well written in "A trip only once." I believe he named the title like this because life is a one-time-only trip and time does not come 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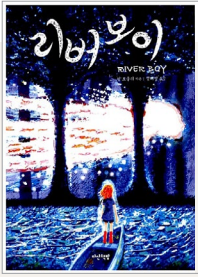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best poem to me. It was hard to pick but was personally most touching.

Where you have left

I remain alone where you have left and keep you
 Your steps, your breath, your memories
 I keep the mountain you left
 I keep the field you left
 I keep the white cloud you watched in the river, the sky
 And I change alone
 Little by little without myself noticing
 Little by little without you noticing.

The poet wrote the poem while he missed his daughter, but it reminded me of my friend who left me and how we met again. Since my friend left, who I depended on when I first came, a year passed and we met again but the emotions we had felt were already frozen and I don't think I met my friend properly as I felt at that moment. At first I wanted to remember everything about my friend, but I think I realized how I had changed, like this poem says.

This is why I like this book. It is not merely a message by a father to his daughter, but allows reflection on my own memories through the love of the father. It gave me a joyful and meaningful time while reading. So I would like to recommend you to take your time on poet Ra Tae-joo's book, which will warm your heart.



© 알라딘

리버보이 (팀 보울러)

River Boy (Tim Bowler)

김수하 • Suha Kim (7A)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내가 어찌면, 이 책을 읽은 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외할머니의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 선생님께서 나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셨던 이유도. 나의 부모님께서 공무원이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추억 앨범에는 할머니의 인자하고 주름진 미소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잊고 있었다. 할머니께서 나에게 비추셨던 핑크빛의, 노을이 질 때에 보이는 하늘의 색깔의 사랑을. 그리고 이 책을 마지막으로 덮은 날이, 할머니의 기일이었다. 나에게 참으로 인자했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할머니. 제스의 할아버지의 사랑처럼. 짧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에 가장 행복한 웃음을 머금었던 순간에는, 항상 할머니께서 옆에 계셨다. 부모님만큼이나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할머니. 사랑하는 할머니. 사랑이라는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할머니와 나의 관계. “리버 보이”라는 책을 만나게 된 우연은 할머니께서 내게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는 소원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표지에 나타난 나무 사이를 휩쓸면서 지나가는 어떤 형상처럼, 새벽의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는 숲 속에 밝음을 선물해주셨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을 주는 것은 할머니와 내가 지나온 짧고 굵었던 기억과 세월이고, 제스의 할아버지의 어릴 적 소원을 이루게 한 리버보이는 할머니와 나의 어릴 적 무심코 한 약속과 같을 지도 모른다. 지금도 밝은 햇살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할머니. 나의 첫 시작을 벚꽃 흩날리는 시작으로 만들어준 할머니. 제가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당신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이 해가 떠오르는 따뜻함을 주었기 때문이고, 나의 아주 어렸을 때에 생긴 첫 ‘변함’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The most joyful moment of life

This book could have been a gift from my maternal grandmother. Also how my teacher recommended it to me. My parents are public officials, so they would leave home early and return in the afternoon, since I was young. This is why the memory album of my childhood has multiple pictures of my grandmother with her peaceful, wrinkled smile. But I have forgotten. The pinkish sunset and the love of the colors in the sky during sunset, which my grandmother had shown to me. And it was her date of death when I read the last page of this book. She was so kind to me and I loved her dearly. My dear grandmother. Like the love of Jess' grandfather. Among the short life I've lived since birth, when I was most joyful, she was always there. My grandmother whom I loved as much as my parents. My beloved grandmother. It may be impossible to even put our relationship in a word called love. River Boy might have been a book that my grandmother had wished for me to read by chance. Like the figure of something that passed by the trees of the face of the person on the cover of the book, it may have been a gift of brightness inside an icy forest at dawn. Meanwhile, the soft and warm feeling might be the short yet strong memories of my grandmother and me spent together, while the river boy, who made Jess' grandfather's wish from his childhood come true, could be the promise we made when I was young. My grandmother must still be watching over me above the sunshine. She made my first start with cherry blossoms. The reason I cannot forget you is because every moment with you gave me warmth as the sun rose, which was the first 'change' I had experienced when I was very young.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

제스는 알프레드 할아버지가 해석한 할아버지의 그림이 리버보이가 행하고자 했던 것임을 알고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강 속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서너 시간 동안 강이 주는 포근함을 타고 리버보이를 향한 여정을 떠난다. 이게 바로 내가 포항에 오기 전에 살았던 인생이다. 내가 헤엄을 쳐야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어서 내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꽤 흐른 후, 제스는 점점 팔다리가 저려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가빠진다. 이 느낌은 리버보이를 찾지 못했다는 절망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내가 왜 포항에 와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이 학교에 입학한 것 같이. 제스는 수영을 한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수록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을 것이다. 정말 기진맥진 하였을 때 제스의 눈앞에 파도가 밀려왔다. 그리고 리버보이가 찾아왔다. 제스가 그토록 찾던 것들이 바람에 떠밀려오듯이, 찾아온 것이다. 그 순간 제스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금세 사라져버린 리버보이가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리버보이는 나에게 ‘행복’이라는 상징이었다. 내게 처음으로 다가왔을 때는 호기심과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지만, 오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환희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내가 본 리버보이였다. 그리고 파도는 나에게 휴식이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 찾아오는 자투리 시간. 짧지만 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 그러나 리버보이와 파도의 공통점은 금세 사라져버려서, 깊은 여운과 아쉬움만 남겨주고 떠난다는 것이다. 그렇게 떠나고 나면 내게는 뽕족한 현실만 남아있지만 이따금 찾아오는 행복이, 훨씬 크기에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제스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다.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장난끼 가득한 미소를 머금던 할아버지의 입에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제스가 비로소, 할아버지가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강의 시작점에서 할아버지의 재를 흠뻑릴 때 할아버지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되어, 자유롭게 강과 바다를 헤엄치고 하나의 새가 되어, 구름이 되어, 제스가 고난을 이겨내고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나는 하늘과 할머니의 사진을 보고있노라면, 신비로움과 다른 세계에서 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제스가 강의 시작점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몸소 느꼈던 것처럼. 오늘도 나는, 제스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사랑한다.

When you should not give up

After Jess learns that her grandfather's drawing interpreted by grandfather Alfred was what the river boy planned to do, he crosses the river without hesitation. And after a few hours, he heads to the river boy on a comfortable ride given by the river. This is my life before I came to Pohang. I had to swim on my own part to go forward, but somehow everything surrounding me drew me closer, apart from my own strength. But after a long time, Jessy feels her limbs getting numb and gets out of breath. She is discouraged because she can't find the river boy. Just as how I felt when I couldn't find the reason why I had to come here and go to our school. Jess must have wanted to give up, the longer she had to swim. And when she was entirely fatigued, a wave came across her sight. The river boy came. What she looked for so hard came to her, like the wind. At that moment, Jess thought it was a relief but when the river boy left, she must have been frustrated. To me, the river boy meant 'happiness(joy)'. It was mysterious and I was full of curiosity at first, which grew as delight, the more it came. This was the river boy that I saw and the waves meant a 'rest' to me. An interval that comes when I am overwhelmed, which is short but allows me to take a break. But both the river boy and the wave do not stay long, which leaves a lingering mark. After they go, I am left with the reality to face, where the occasional happiness that comes along outweighs the situation and gives me strength to live. By the time Jess returns to the hospital, her grandfather has already passed away. He left with a peaceful smile on his face that he would show when he used to play around with her. When Jess sends his grandfather to the river in ashes, he must have finally become a fish swimming in the sea, a bird flying in the sky, a cloud watching over Jess during her hard times. When I look at the sky and a picture of my grandmother, I can feel something mysterious, like from another world. Just like how Jess felt the beauty when she watched the starting point of the river. Today, once again, I, Jess, and someone in their lives, misses, recollects, and loves, someone.

기증 도서 소개

Introducing Donated Books

* 어린이 성경 동화, 박청(6학년) | Children Bible Fairytale Books, Joy Park(G6)



여러 해 방학 때마다 어린이 영어동화책을 3층 도서관으로 손수 올려다 주시는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삼백 여권의 영어동화책들을 나눔 해주고 계신데요. 예수님 오신 달을 맞아 재미있는 어린이 성경 동화책과 함께 따뜻하고 평온한 성탄 맞으시길 두 손 모읍니다.



During vacation, one of our students' parents has consistently delivered children English fairy tales to the library, which is on the 3rd floor. They have sent approximately 300 books so far. Coming to the month of Jesus' birth, we hope for a warm and peaceful Christmas for students with the donated books.

* 진로 도서 | Guidance Books



우리학교 도서관에서는 실시간 구글 공유 시트를 통해 희망도서를 신청받아 비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진학을 앞둔 중고등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때에 맞게 신속하게 진로 관련 도서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올 한 해도 다양한 분야의 관련 도서들이 입고 되었는데요. 특히 IT 관련 실용 도서들이 있습니다. 기말 시험 후 틈새 시간을 잘 이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We receive book requests online through a real-time Google sheet, which you can see on display on arrival at the library. It has been helpful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seek guidance on their future career, getting the books requested on time. There have been book requests in various fields, especially books related to IT that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I hope students find time to read after their final exams.

도서부 코코보코

CO-CO-BO-CO Book Reading Club

올해 2기를 맞은 도서부 코코보코 클럽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의기투합해 열심히 활동해준 도서부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대외적인 홍보 활동보다는 도서부 자체로 내실 있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주로 했지요. 다 함께 릴레이로 소설 한 권을 요약하고, 낭독하고. 특히 김진실 선생님의 인디자인 특강도 훌륭했지요. 무엇보다 시를 짓고 감상을 나누고 자신이 몰랐던 감정 어휘에 대해 들여다 보고, 또 그것으로 말로 나누지 않았던 친구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는 후기는 훈훈한 감동을 줍니다. 각자의 쓰임에 맞게 선한 모습으로 우리 학교의 지식과 교양과 무엇보다 나눔의 연결통로가 되어준 선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Book Reading Club Cocoboco has finished this semester's activities. I am thankful to the club students for having done their best throughout the year. This year, we have focused on building up through meaningful events within our club, rather than external activities. We summarized a whole novel, cited it together, and had lectures by Ms. Jinsil Kim. Above all, the feedback on writing poems and sharing thoughts gives us a warm smile. Students were able to widen their emotional diction and read the feelings of others, especially for those who haven't had much conversation. I bless our kind students, for being a communication vessel of sharing, along with our school's knowledge and insight according to each position.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이 번지는 환한 세상이 다음 행보에도 이어지길 앙망합니다.

We hope they find wisdom in God's Word, and brighten the world by sharing it on their next step.



Nurse's Office News

인플루엔자

Influenza

약물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

Prevention of Misuse / Abuse of Drugs and Narcotics

By 이지원 | 보건 교사

Ms. Jiwon Lee · School Nurse

최근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감기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주의보가 발령되어 호흡기 감염병 예방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럼~ 인플루엔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s the daily temperature range increases, students have been showing symptoms of a cold. Also, we should be more sensitive to preventing respiratory infections since a flu warning has been nationally announced. Now let's learn more about influenza.

인플루엔자

Influenza

인플루엔자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일반적인 감기증상과 함께 고열, 근육통 등 전신증상이 나타납니다.

Influenza is a respiratory infection that causes cold symptoms along with a fever, muscle pains, etc. throughout the whole body.

진단검사 실시 | Diagnostic Tests

- 증상만으로 감기와 인플루엔자는 구별하기 어렵고, **진단검사를 통해 구별**합니다.
- 의심 증상이 있을 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a cold and influenza based on symptoms alone, and is **differentiated through diagnostic tests**.
- If you have any suspicious symptoms, you should visit the hospital for diagnostic tests and treatment.

예방수칙 준수 | Keep Prevention Tips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및 기침 예절 지키기
- 적절한 환기, 충분한 수분 및 영양 섭취, 휴식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받기
- Wash your hands with soap in running water for longer than 30 seconds
- Wear your mask and keep coughing manners
- Ventilate often, drink enough water, eat nutritious, and have rest
- Get a diagnosis if you have symptoms such as a fever, coughing, sore throat, etc.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 School Suspension and Attendance Acceptance

- 인플루엔자는 등교중지 대상 법정 감염병입니다.
Influenza is a legal infectious disease thus students with it must not attend school.
- 등교중지 기간: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또는 의사 소견서에 따라 등교중지.
Suspension period: Suspended until 24 hours have elapsed after one has recovered normal body temperature without a fever reducer or according to a doctor's note.
- 치료, 완치 후 **의사 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결석한 기간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단, 소견서에 **진단명,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격리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됨)
After remedy and full recovery, submit the **doctor's note**(or medical certificate) to your homeroom teacher to be accepted for attendance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 The note/certificate must include the **name of the diagnosis, period of quarantine** and only the written period will be accepted for attendance.)

약물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

Prevention of Misuse / Abuse of Drugs and Narcotics

최근 10대들도 SNS를 통한 마약성 다이어트약을 불법 구매 및 복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여 마약류 등의 약물 오·남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ately there have been issues of the youth under 20 of age illegally purchasing narcotics for uses of losing weight through SNS. We will find out about misuse and abuse of drugs of the sort.

약물이란? | What are drugs? (as defined broadly)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을 포함하여 **신체와 정신의 작용을 변화시키는 물질**
(*술, 담배, 카페인도 약물에 포함)

A substance or pharmaceutical product that **alters the operation of the body and mind** for the purpose of curing or preventing a disease (*Includes alcohol, smoking(nicotine), caffeine)

약물의 잘못된 사용법 | Wrong usage of drugs

- **오용** 의학적 목적이지만, 사용법이 잘못된 것
- **남용** 의학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예: 중독)으로 약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 **Misuse** used for medical purposes, yet with wrong methods
- **Abuse** used for non-medical purposes (e.g., addiction)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따른 폐해 | Danger of wrong usage of narcotics

-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위험한 사용, 내성 및 금단증상
- 신경조직망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 불가
- 기억력 감퇴, 집중력과 판단력 장애 발생
- 뇌, 간, 심장 등 신체 각 기관 손상 가능
- 환각 상태에서 범죄 유발
- Dependency, loss of ability to control, sociality disorder, dangerous usage, tolerance and withdrawal symptoms
- Normal life is impossible due to damage of neural network
- Memory loss, loss of concentration and discernment ability
- Possibility of damage to body organs such as the brain, liver, heart, etc.
- Committing crime at a hallucination state

- * 잠 깨는 용도로 카페인 고함량 음료를 지속적으로 복용한 청소년들에게 신경과민, 자살 생각, 수면 장애, 간 기능 손상, 갑작스런 심장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
- * 살 빼는 용도로 마약성 약물을 오·남용할 경우 우울, 불안, 과호흡, 환각상태 등 후유증 유발 가능

- * Intake of drinks with high content of caffeine to wake up:
Young adults who have continuously done as the above may suffer from severe aftereffects such as irritability, suicidal thoughts, sleeping disorder, damage in liver functions, a sudden heart attack, etc.
- * Narcotics for the purpose of losing weight
When misused or abused, the intaker may have aftereffects such as depression, anxiety, hyperventilation, a hallucination state, etc.

약물 오·남용 예방법 알아보기 | Prevention of wrong usage of narcotics

- 약은 필요 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용 지도를 받아서 복용할 것
- 임의로 약을 복용하지 않기
- SNS 등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을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않기
- 규칙적인 생활과 취미활동을 통해 건강 유지하기
- If drugs are necessary, they are to be taken by a doctor's prescription and a pharmacist's instruction on taking medicine
- Do not take a dose randomly without instruction
- Do not purchase or take a dose of drugs through SNS etc. where instructions are not stable
- Maintain your health through an organized life pattern and hobbies



Creative Corner

9학년 명화 모자이크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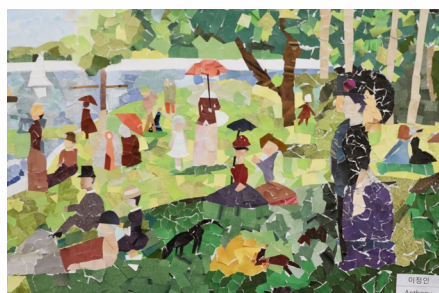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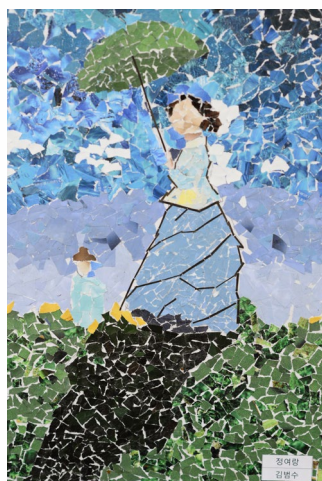
9th Grade Mosaic Painting Artworks

By 윤영실 | 중고등 미술 교사

Ms. Young Shil Yun · MHS Art Teacher

9학년 학생들이 협동하여 동서양의 명화를 모자이크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원작의 특징을 관찰하고 연구한 후, 작은 색조각을 붙여 새롭게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은 본 작품들은 미션홀 1층 복도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9th grade students teamed up and made mosaics by reconstructing famous paintings. After observing and studying the original works, they reinterpreted by pasting colored pieces together. You can enjoy these works, which they put a lot of time and effort into, in the corridor on the 1st floor of the Mission Hall.



Awards

외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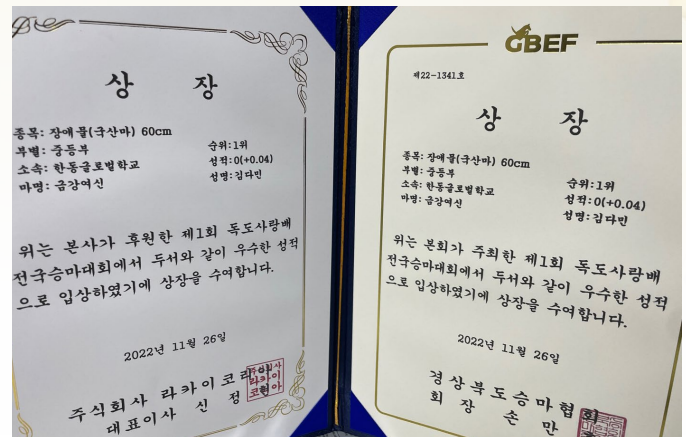
Awards

제 1회 독도사랑배 전국승마대회

1st Love Dokdo Cup National Horse-riding Competition



11월 22일(화)부터 27일(일)까지 개최된 제1회 독도사랑배 전국승마대회에서 7학년 김다민 학생이 중등부 60cm 장애물 부문에 105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합 1위를 하며 한동글로벌학교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7th grader Damin Kim won in the 1st Love Dokdo Cup National Horse-riding Competition held during November 22nd(Tue) to 27th(Sun). He received 1st place in the 60cm obstacle category among 105 participants.

수상 | Award

수상자 | Awardee

부문 | Category

금상 • 1st Place

김다민 • Damin Kim (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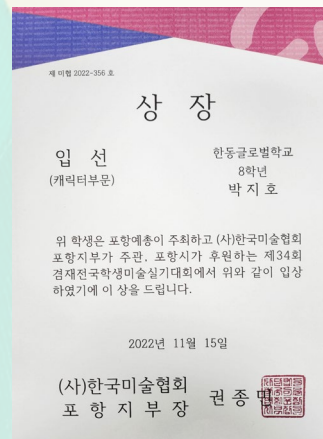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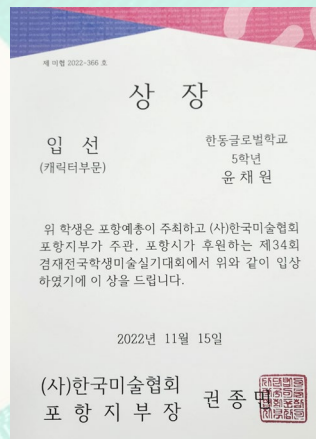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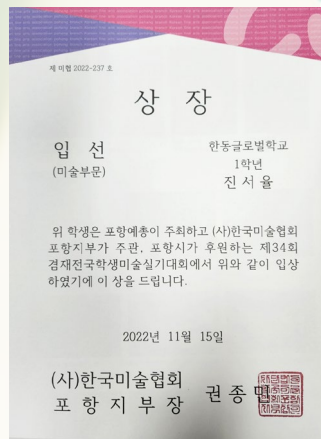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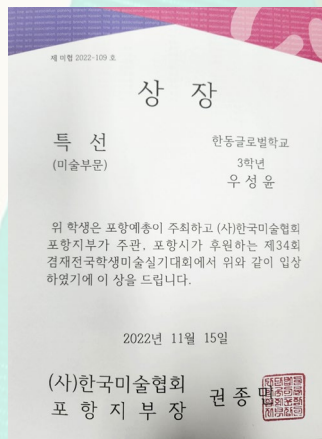
60cm 장애물 • 60cm Obstacle

제 34회 겸재 전국 학생 미술 실기 대회

34th Gyeongjae National Student Art Competition

2022 시민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제 34회 겸재 전국 학생 미술 실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생대회로 열리지 못하였지만, 각자 제작한 작품들을 공모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 학교 참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입상하였습니다.

As a part of a civic cultural event, the 34th Gyeongjae National Student Art Competition took place. There was no drawing competition because of COVID-19, so the contest was held by participants submitting their works. Our school students won as the following.



부서 Department	수상 Award	수상자 Awardee	부문 Category
초등 · ES	입선 · Finalist	진서율 · Emma Jin G1	미술 Art
	특선 · Special Prize	우성운 · Daniel Woo G3	
	입선 · Finalist	윤채원 · Lucy Yoon G5	캐릭터 Character
중등 · MS	입선 · Finalist	박지호 · Jiho Park 8A	

제 12회 독도사랑 미니북 콘테스트

12th I Love Dokdo Mini Book Contest

초등학교 저학년 공동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수상하였습니다.

Elementary grades 1-3 students won the following.

수상 부문 Category	수상 Award	수상자 Awardee
초등 저학년 공동 ES G1-3 Joint	최우수상 · Grand	백건우 · Geonu Baek (G3) 서승환 · Daniel Seo (G3) 안예은 · Haisely Ahn (G3)
	장려상 · Participation	박서준 · Seojun Park (G1) 박서윤 · Seoyun Park (G3)

SKAC STEM 대회

SKAC STEM Fair

초등학교 | ES





수상 | Award

학년 | Grade

수상자 | Awardee

4학년 · G4

금상 · 1st Place

김하람 · Haram Kim
 김수현 · Sena Kim
 이호은 · Hoeun Lee
 이도훈 · Peter Lee

5학년 · G5

김은율 · Eunyul Kim
 장하람 · Christine Jang
 김나윤 · Haram Kim
 윤시온 · Zion Yoon

중고등학교 | MHS



부서 | Department

수상 | Award

수상자 | Student

부문 | Category

중등 · MS

금상 · 1st Place

홍윤 · Yoon Hong | 12A
 송욱찬 · Wookchan Song | 11B

환경공학
 Environmental Science

금상 · 1st Place

김용진 · Yongjin Kim | 10A

로봇공학 Robotics

고등 · HS

금상 · 1st Place
 인기상 · Popularity Winner

이예나 · Yena Lee | 8A
 최로아 · Roah Choi | 8A

생물학 Biology

금상 · 1st Place

성아인 · Ain Sung | 8A
 정주현 · Juheon Jung | 8A

수학과 통계
 Mathematics
 and Statistics



HIS Connection
Archive

2019 - 2021

<https://bit.ly/3v2RN43>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ans 12:2





Renew
Our
Mind!